

소년비행

-사회학적 이해와 보호대책-

이장현

홍익대 사회학과 교수

소년비행의 누범화를 막기 위해서는 비행소년을 보는 「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비행소년이란 정상소년과 질적으로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사악한 인간의 무리들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도 정상소년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욕구와 감정, 열망 등을 갖고 성장해 온 정상적인 소년들이다. 그들을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전락시킨 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가 비행소년을 응징하고 처벌하려는 태도보다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더 악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법집행기관에서 「일벌백계주의」라는 원칙 하에 특정비행소년에게 지나친 형벌을 가한다거나 언론기관에서 소년비행을 지나치게 확대 보도하는 등의 신경질적인 사회적 반응은 비행소년의 예방과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다.

I. 머리말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면 인간의 물질생활이 보다 더 풍요하게 되는 반면 비물질적 영역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병리와 개인병리라는 현상으로 표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1960년대 초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제성장위주의 근대화 작업은 사회의 제영역에 걸쳐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변화를 야기시켜 물량적인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비물량적인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화는 일반적으로 인구의 지리적 이동을 촉진시켜 전통적인 공동체적 사회구조를 해체하면서 인구를 도시지역으로 집중시킨다.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도시에 있어서의 각종의 사회병리의 근원이 된다.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병리란 주로 도시적인 현상으로 도시란 그것이 갖고 있는 제경제적, 사회문화적 시설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여러 병리현상이 집중적으로 노증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소년비행화 현상도 기본적으로는 도시적인 현상이며 사회 계층적으로는 주로 하류층의 현상이다. 따라서 소년비행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해체 현상과 계층간의 각종의 격차현상과 연관 지워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최근 한국사회에 있어서 소년 비행의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는 소년비행을 설명하려고 하는 몇 개의 사회학적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그 보호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비행소년의 개념과 실태

1. 비행소년의 개념

무엇이 비행이며 누가 비행소년인가를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라마다 비행의 기준에는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소년이 성인에 의해서 저질러 졌으면 범죄로 취급될 행위를 범했을 때 비행소년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주에 따라서는 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흔히 보여주는 사소한 탈선행위(예를 들면 무단결석, 가출, 부모에 대한 반항, 흡연)까지도 소년비행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1958년 7월 24일 법률 제 489호)에 의하면 소년법원의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으로 되는 비행소년을 다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2) 촉법소년 :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3) 우범소년 : 12 세 이상 20 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은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또는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자와 교제하는 등의 사유로 장래 범법할 우려가 있는 자.

위에서 언급된 비행소년의 개념에 의하면 형벌법규를 위반하는 범법행위는 물론 범법 이전의 사소한 탈선행위와 성격상의 결함으로 인한 퍼스낼리티의 부적응까지도 비행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년비행이라는 개념 속에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비범죄 행위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은 소년법의 교화개선주의적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인과는 달리 성장발육기에 있는 소년들은 심신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또 그들의 범죄성향과 반사회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이들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사실은 그러한 교화개선주의적 철학이 민주사회의 법치주의이념과는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사회의 법치주의에 의하면 시민의 자유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경우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장래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의 자유는 구속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어떤 소년이 경미한 탈선행위를 해서 비행소년이라는 공식적인 낙인을 받게 되면 바로 이 사실때문에 그는 사회생활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반사회적이며 위법적인 행위에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소년법이 교화개선주의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는 이 과정을 잠식하려는 부정적인 소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 소년범죄의 연도별 추세

최근 한국사회에 있어서 소년범죄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흉악화해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치안본부나 대검찰청의 통계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물론 비행통계란 절대적으로 신빙성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사회의 범죄 추세를 측정하는데 유효한 자료가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표- 1>에는 치안본부에서 집계한 소년범죄의 유형별 동향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양적인 추세를 보면 증감현상에 있어서 다소의 기폭은 없지 않으나 소년범죄는 대체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1974 년도에는 소년범죄자의 총수가 49,522 명 이으나 1981 년도에는 69,549 명으로서 그 증가율은 무려 40%나 되고 있다.

<표 1> 소년범죄의 유형적 동향

(단위: 명)

		(單位:名)							
區 分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計		49,522	59,046	66,433	65,521	60,365	59,975	65,459	69,549
殺 人		63	85	39	68	55	67	75	64
強 盜		864	1,055	987	834	741	870	1,695	1,779
強 姦		724	858	952	1,204	1,129	1,291	1,580	2,220
放 火		38	52	42	34	40	37	22	44
暴 行		18,599	26,830	27,340	30,819	27,773	29,794	30,890	29,048
窃 盜		21,767	21,120	26,477	22,228	18,631	15,570	20,614	25,700
傷 害		786	917	899	1,066	960	856	892	859
恐 喝		195	213	252	255	227	203	248	262
脅 迫		20	28	29	19	12	22	13	30
橫 領		351	488	459	385	403	291	245	302
賭 博		144	193	291	264	184	144	128	142
贓 物		895	774	797	564	470	356	431	571
詐 欺		483	553	430	380	338	351	360	369
其 他		4,593	5,880	7,439	7,461	9,402	10,123	8,266	8,159

資料:青少年 白書 1982 P.357

자료:청소년 백서 1982 P.357

<표 2>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상황

(단위: 명)

(表 2) 少年犯罪者の 年齢別 状況

(単位:名)

年 度	少年犯罪者		14歳未満		14～15歳		16～17歳		18～19歳	
	人 員	構成比	人 員	構成比	人 員	構成比	人 員	構成比	人 員	構成比
1977	83,730	100	2,641	3.2	9,914	11.8	28,536	34.1	42,639	50.9
1978	5,300	100	2,163	2.9	8,415	11.2	24,283	32.2	40,439	53.7
1979	79,240	100	2,103	2.7	8,426	10.6	22,864	28.9	45,847	57.8
1980	87,962	100	2,643	3.0	12,322	14.0	27,083	30.8	45,914	52.2
1981	88,936	100	3,298	3.7	14,197	16.0	29,590	33.3	41,851	47.0

한편 같은 표를 통해서 소년범죄의 질적 추세를 고찰해보면 강도,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가 매우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974 년과 1981 년 사이에 강도는 106%, 강간은 207% 그리고 폭행은 56%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소년범죄는 날로 흉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다. <표- 2>를 보면 소년범죄자 중 저연령층의 구성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1977 년과 1981 년 사이에 14 세 미만층은 전체 소년범죄자 중, 그 구성비는 3.2%에서 3.7%, 14, 15 세층은 11.8%에서 16%으로 증가한데 비해 16, 17 세층은 34.1%에서 33.3%, 그리고 18, 19 세층은 50.9%에서 47%로 감소하고 있다. 요컨대 소년범죄의 강력범화 또는 흉악화 현상과 저연령화 현상은 앞으로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려는 정책적 노력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3 소년범죄자의 계층적 배경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범죄는 주로 도시적 현상이다. 동시에 그것은 도시의 하류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년범죄자들의 계층적 배경을 이들 가족의 생활정도라는 경제적 변수를 사용해서 알아 보았을 때 이들의 태반은 생활정도가 매우 낮은 하류층이나 극빈층에 속하고 있다.

<표 3> 소년범죄자의 생활정도별상황

(단위: 명)

年 度	計	下 流	中 流	上 流
1977	83,730 (100)	77,288 (92.3)	6,067 (7.2)	375 (0.5)
1978	75,300 (100)	68,486 (90.9)	6,462 (8.6)	352 (0.5)
1979	79,240 (100)	71,793 (90.6)	7,108 (9.0)	339 (0.4)
1980	87,962 (100)	79,232 (90.1)	8,406 (9.6)	324 (0.3)

자료:대검찰청

<표 4> 소년범죄자의 전과별 상황

(단위: 명)

年 度	計	初 犯	前 科			
			小 計	1 犯	2 犯	3 犯
1 9 7 7	83,730 (100)	76,248 (91.1)	7,482 (8.9)	5,895 (7.0)	1,179 (1.4)	408 (0.5)
1 9 7 8	75,300 (100)	67,614 (89.8)	7,686 (10.2)	5,857 (7.8)	1,320 (1.7)	509 (0.7)
1 9 7 9	79,240 (100)	70,387 (88.8)	8,853 (11.2)	6,508 (8.2)	1,588 (2.0)	757 (1.0)
1 9 8 0	87,962 (100)	78,246 (89.0)	9,716 (11.0)	6,954 (7.9)	1,845 (2.1)	917 (1.0)

자료: 대검찰청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소년범죄 중에서 하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 표에서 특히 주목할 사실은 중류층에 속하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완만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가 물량적으로 성장하여 중류층의 인구구성비가 높아진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지만 한편 일부 중류층 성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의식의 심화 더 나아가서는 가족기능의 감퇴화 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4. 소년범죄자의 전과별 상황

최근 소년범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추세중의 하나는 전과율이 조금씩 상회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7 년도에는 총소년범죄자(83,730 명) 중의 전과(1 범, 2 범, 3 범) 비율이 8.9% 였으나 1978 년도는 10.2%, 1979 년과 1980 년은

각각 11.2%와 11%나 되고 있다. 이처럼 소년범죄자의 전과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도행정과 사회보호의 측면에서 어딘가 허점이 있다고 하는 점을 암시해 주는 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소년범죄의 개념과 실태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특히 소년범죄는 도시사회의 하류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병리현상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러한 소년범죄를 설명하려는 몇 개의 사회학적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소년비행(범죄)에 관한 사회학적 이해

소년비행을 이해하려는 이론적 입장은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사회 및 문화구조적 시각에서 소년비행을 파악하려는 사회학적 이론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물론 사회학적 이론들도 그 강조점과 관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간의 공통점은 소년비행을 개인의 퍼스널리티의 병리와 관련지워 파악하려는 미시적인, 심리학적 또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을 완강히 거부하는데 있다. 소년비행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들은 소년비행과 같은 일탈행위도 동조행위처럼 사회 및 문화구조의 산물이란 점을 중시한다. 환언하면 사회구조라든가 규범적인 문화체계가 소년비행을 통제 예방하는데도 기여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일탈행위를 유발하는데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소년비행을 개인의 정신의학적 결함이나 퍼스널리티의 병리에 기인한다는 이론적 관점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요컨대 사회학적 시각은 개인의 책임보다도 사회적 책임을 역설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하겠다.

1. 사회해체와 소년비행

대도시에 있어서 소년비행이 왜 도시의 중심부와 그 인접지역인 빈민가에서 대량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가.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을 일부 사회학자들은 사회해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범죄나 소년비행을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및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방법을 거부하고 소년비행의 사회적 근원을 밝히려고 하였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던 쇼우(C. Shaw)와 맥케이(H. Mckay)는 미국의 여러 도시에 있어서 비행소년의 생태학적 분포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 소년비행은 주로 도시의 중앙상업지역을 둘러싼 천이지역 즉 슬럼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지역은 고도의 인구이동과 밀집, 불량주택 등의 물리적 악조건으로 특징되는 빈곤계층의 지역으로서 범죄, 자살, 알콜중독환자, 매춘들이 만연되고 있는 사회해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해체란 사회규범의 준수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공감감이 감퇴되거나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쇼우와 맥케이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해체적인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귀속의식이 극히 미약한 반면 소년비행을 합리화하고 지지해주는 일련의 문화적 가치와 양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환언하면 이러한 지역에서는 소년비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일종의 정상적인 행위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거주하는 소년들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러운 행위양식으로 학습하여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해체현상이 농후한 지역에서 소년비행은 대대로 전승되는 문화적 전통이며 소년들은 그러한 전통을 학습함으로써 비행을 범하게 된다. 비행문화가 전승되는 경우 전승의 주된 매체는 소수의 인원만으로 구성된 유희집단(play group)과 갱이며 따라서 소년비행이란 소집단을 매개로 전승되는 하위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쇼우와 맥케이는 소년비행도 동조행위처럼 사회적으로 전달되고 학습된 문화적 행위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소년비행을 포함한 각종의 일탈행위가 개인의 정신의학적 결함이나 퍼스널리티의 병리 내지는 생물학적 요인의 산물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반박하면서 소년비행은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2. 아노미와 소년비행

아노미(anomie)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무규범(normlessness) 즉 무규제한 사회상태를 말한다. 아노미는 원래 불란서의 사회학자 에밀 · 둘케임(Emile Durkheim)에 의해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데 처음으로 사용되었지만 미국의 사회학자 멀톤(R.K.Merton)은 다양한 형태의

일탈행위(자살, 범죄, 비행, 정신적 질환, 알콜중독, 혁명적인 사회변화 등)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탈행위에 관한 일반이론을 정립하는데 이 개념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멀톤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은 소년비행만을 설명하는 한정된 이론이 아니고 기타의 일탈행위도 설명하려는 보다 더 포괄적이며 고차원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멀톤은 일탈행위도 동조행위처럼 사회구조의 산물이라는 기능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구조란 일탈행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창출하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일탈행위를 개인의 고정된 선천적 충동의 산물로 보거나 사회구조를 단순히 충동의 관리자로 보려는 프로이드 학파의 주장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요컨대 그는 소년비행을 포함한 일탈행위란 사회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일탈행위를 유발시키는 아노미는 왜 발생하는가. 멀톤에 의하면 사회적 현실태(social reality)는 문화구조와 사회구조로 구성되고 있으며 문화구조에는 문화적으로 강조되는 목표와 이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규정해주는 규범적 체계가 있다고 한다. 아노미는 바로 그러한 목표와 수단간의 격차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가 문화적 목표(예를 들면 물질적 성공이나 출세)를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일률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를 합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계층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상황에서는 아노미가 조성되고 또한 제도적 수단에 접근할 수 없는 하류층의 성원들은 위법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려는 일탈에의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격차에 바탕을 둔 멀톤의 아노미 이론은 한 사회내에서 사회계층 또는 인종간에 보여지는 상이한 일탈 행위의 비율을 잘 설명해 준다. 일탈행위의 비율은 개인이 내면화 한 문화목표와 그 목표성취를 위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기회간의 불일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물질적 성공과 출세와 같은 문화적 목표의 실현을 가능케 해주는 제도적 수단은 높은 교육수단 전문적인 직업적 배경 및 가족적 배경 등인데 이러한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개인 또는 계층의 성원들은 사회적으로 우상화되고 있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법적이며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비합법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다. 문화적 목표가 일률적으로 강조되면서 제도적 수단과 기회구조가 계층적으로 차별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연히 그러한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하류계층의 일탈행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아노미 이론의 이러한 시각을 소년비행과 관련지워 쉽게 풀이하면 소년비행이 하류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하류층의 소년들도 물질적 성공을 중시하는 문화적 목표를 수용했으나 이들은 이 목표를 합법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등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족의 경제적 지위도 낮고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부를 획득할 수 없어서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적방식으로 사회가
우상시하는 부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밀턴의 아노미 이론에는 여러가지 결함이 내포되고 있다. 우선 이 이론은 사회의 모든
성원이 물질적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내면화하여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가치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가설에 대한 의문이 여러 연구논문에서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서 이 이론은
영리적인 동기에 근거하지 않은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인 성격을 지닌 소년비행이나
성인범죄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아노미 이론은 일탈행위 일반은
물론 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로써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다음에 고찰한
소년비행의 제이론에서도 그 흔적을 엿볼 수가 있다.

3. 하위문화와 소년비행

여기서는 앞에서 소개한 아노미 이론을 하위문화라는 관점에서 보완하고 수정하려는 분화적
기회구조론과 비행하위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분화적 기회구조론

이 이론의 창시자는 클로워드(R. Cloward)와 오희린(L. Ohlin)인데 이들은 먼저 아노미 이론의
시각에서 왜 대도시의 하류계층의 소년들이 집단적인 비행을 저지르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한다. 즉 이들은 물질적인 성공목표는 계층의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가 사회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아노미 이론의 관점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들은 아노미 이론이 비합법적인
기회와 수단도 그 이용가능성과 접근에 있어서 사회 구조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하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합법적 방법으로 물질적 부를
획득할 수 없는 하류층의 성원들이 모두가 비합법적 방법과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합법 기회도 사회구조상으로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마치 의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 그 자체가 의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처럼 적어도 능란한 범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범죄적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른 바 비합법적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사회가 우상시하는 물질적인 성공을 이룩하게 위해서는 범죄집단이나 범죄문화에 참여하여 고도의 범죄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비합법적인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비합법적 기회란 모든 사람에게 무한정하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비합법적 기회 또는 위법적 수단의 이용과 접근 가능성도 사회구조상으로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 기회구조에서 배제된 사람이라도 그가 비합법적 기회구조에 흡수되지 못하면 「성공적인」 범죄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클로워드와 오희린은 합법적 기회와 비합법적 기회라는 2개의 구조적 변수를 사용하여 특히 대도시의 슬럼지역의 하층계급소년들의 다양한 비행양식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들 이론의 특색이 있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슬럼지역에는 일반적으로 3개의 상이한 비행소년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 모두 물질적 성공을 가능케 해주는 합법적 수단으로부터 배제된 하류층의 소년들로 구성되고있으나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수단에 있어서 상호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슬럼지역의 소년들이 참여하는 비행집단으로서는 범죄갱, 갈등갱, 도피갱 등이 있는데 특정 소년이 어떤 집단의 성원이 되는가는 그가 접근할 수 있는 비합법적인 기회구조(이 경우 슬럼지역내에 존재하는 상이한 사회구조의 성격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회통제가 비교적 강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슬럼지역에 거주하는 소년들은 범죄갱의 성원이 되는 바 범죄갱의 특징은 절도, 사기 등의 영리성이 있는 재산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며 충동적인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데 있다. 범죄갱의 성장기반은 범죄적 모델로서 직업적인 성인범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범죄의 기술과 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통제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슬럼지역이다.

한편 갈등갱은 사회통제가 잘 안되고 따라서 불안정된 슬럼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슬럼 지역에서는 소년들이 범죄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범죄적」 직업을 통해서 물질적 부를 축적한 성인 범죄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소년들은 물질적 성공을 위한 합법적 기회는 물론 비합법적 기회로부터 동시에 차단되어 강렬한 욕구불만감에 사로잡혀 무구속적인 공격성향을 띠게 된다.

마지막으로 도피갱은 알콜중독과 마약의 상용등에 의해서 특징되고 있으며 이 갱의 소년들은 물질적 성공을 위한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편 폭력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다소의 도덕적인 금지의식을 갖고 있어서 고립적이며 도피적인 생활양식에 젖어들고 만다.

요컨대 분화적 기회구조이론은 소년비행의 원인을 제도적, 합법적 수단의 불균등한 배분에서 찾고 비행의 상이한 성격과 형태를 비합법적 수단과 기회의 불균등한 분포에서 찾고자 한데 그 이론적인 창의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이론은 대도시의 슬럼지역의 구조화된 소년비행집단을 설명하는데는 설득력이 있으나 덜 구조화된 비행집단이나 개별적인 소년비행을 설명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2) 비행하위문화이론

소년비행 특히 비행집단에 관한 독창적이며 획기적인 이론으로는 코헨(A. Cohen)이 주장한 비행하위문화이론을 들 수가 있다. 그는 집단적 비행은 하층계급적 현상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비행집단에 특유한 하위문화를 지배적 중산계급의 가치체계에 대한 반동소산이란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다.

코헨은 아노미 이론의 관점에서 미국사회는 중산계급의 도덕적 기준과 문화적 목표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논지를 편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중산계급의 문화 즉 지배적 문화는 출세, 성공 등의 야망을 강조하며 학문적 업적, 기술의 습득, 독립심과 책임감, 근면, 규율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장기적 목적달성을 위한 직장적 만족의 억제, 난폭하고 공격적인 행동의 통제 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층계급의 소년들은 어린시절부터 중산계급의 그들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퍼스낼리티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중산계급의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하거나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데는 여러가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층계급의 소년들의 업적과 행위는 바로 감당하기 힘든 중산계급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예를 들면 중류계급의 가치관을 전수하고 또 중류계급출신의 교사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에서도 모든 아동들은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중류계급의 척도」에 의해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류계급적인 미덕을 구비하지 못한 하류층의 소년들은 지위획득과 입신출세를 위한 경쟁에서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은 중류층의 소년들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적응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응문제의 핵심은 지위적 좌절감과 자아존중의 훼손감정이다.

이처럼 그들의 출신성분과 이에 따른 질적으로 상이한 사회화 과정때문에 하류층의 소년들은 중류층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학교생활이나 일반적 사회생활에서 그들이 개별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여러가지 적응상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유사한 문제에

당면한 이들은 그들의 곤경을 공통의 관심사로 보고 자주 만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문제에 대한 집단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 바로 하류층 소년들의 비행하위문화는 그러한 집단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비행하위문화는 자신들의 지위적인 좌절감과 자아존중의식을 훼손시키는 중류층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도전이며 그것은 지배적인 가치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그들의 업적과 행위가 평가되는 새로운 문화인 것이다. 환언하면 비행하위문화와 이 문화의 참여자인 하류층의 소년들에게는 학교나 일반 사회에서 만족하기 힘든 지위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또 그들이 항상 체험하고 있던 좌절감과 자아훼손의식을 극복해주는 집합적인 방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하위문화란 한마디로 중류층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조성된 하류층 소년들의 적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하위문화의 내용은 중류층의 가치체계의 전도내지는 부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코헨에 의하면 비행하위문화는 비공리성, 악의성, 부정성 및 순간적인 쾌락주의에 의해서 특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행소년들의 절도행위는 어떤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스릴과 흥분을 추구하는데 있기 때문에 비공리적이며 또 이들의 비행은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금기를 파괴하는데 지향 되고 있어서 악의적이며 지배적 문화에 정반대적인 성격을 띠고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또 이들의 행동은 합리적 계획이나 장기적인 안목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집중되고 있어서 쾌락주의적이다.

요컨대 지배적인 중류계급의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나쁜 것은 무엇이든지 비행문화의 기준에 의해서는 옳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반사회적, 반중류계급적인 행위는 비행문화의 기준에 의해서 「도덕화」 또는 정당화된다. 이렇게 볼 때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은 하류층의 소년들이 지배적인 중류계층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와 업적이 평가됨으로써 그들이 체험하는 좌절감과 모독감에 대한 반응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

코헨의 이론은 그것이 독창성을 띤 만큼 또한 신랄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이론에 대한 비판의 요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이 이론에서는 중류계급의 가치체계와 비행집단의 가치체계간의 지나친 단절과 비유사성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 둘째 비행집단의 성원들이 자기들이 저지르는 반사회적이며 범법적 행위에 대해서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셋째 중류계층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동일한 적응의 문제, 즉 지위적 좌절감을 갖고 있는 하류층의 소년들 중에서 왜 많은 소년들이 집단적인 비행에 참여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넷째 하류층의 소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유형은 절도인데 이것을 단순히 부정적이고 비공리적 측면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비판의 내용이 요약될 수 있다.

4. 중화의 기술과 소년비행

소년비행의 한 이론으로서 중화의 기술이라는 특유한 이론을 제시한 학자는 마트자(D.Matza)와 시케스(C.Sykes)이다. 이들은 앞에서 소개한 하위문화적 전통에 대해서 가장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소년비행은 특정한 하위문화의 소산이 아니고 지배적인 가치체계의 일부인 잠재적 가치의 반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소년비행을 지배적 가치체계와 적대적 관계에서 파악하려는 코헨의 시각과는 정반대로 비행사회와 일반사회와의 가치관의 단절보다 그 유사성을 역설하고 있다.

마트자와 시케스에 의하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는 통상 공식적인 가치와 비공식적인 잠재적 가치로 구성되고 있다. 예컨대 전자는 근면, 노력, 인내, 폭력의 금지 등을 강조하며 후자는 모험과 흥분의 추구, 사치와 소비, 폭력과 공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공식적 잠재적인 가치들은 중산계급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면에 숨어있다가 유한적 상황이나 운동 또는 의식적 행사등에서 나타나고 하류계급의 경우에는 비행이란 형태로 굴절되거나 야비화된 상태로 표현될 뿐이다. 이러한 가치의 공유현상을 지하적 동맹(subterranean convergence)이라 불려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류층의 소년비행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반영하거나 거기에 동조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지배적인 가치체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하류층의 소년들이 그것에 위배되는 비행을 범할 수 있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트자와 시케스는 대충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년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특정상황에 그런 행위를 정당화 또는 합리화해주는 중화의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화의 기술습득은 사회통제의 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동시에 준법사회의 시민이라는 자아상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서도 위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중화의 기술이란 무엇인가.

첫째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이다. 이는 비행소년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합리화해주는 기술이다. 이 경우 비행은 비행소년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행위가 아니고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나 압력(파손된 가정, 부모의 애정결핍, 빈곤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러진 것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비행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존의 규범은 책임의 부정이란 기술에 의해서 중화되는 것이다.

둘째 타인에 대한 가해의 부정이다. (denial of injury)이다. 이는 비행소년이 자기행위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거나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 함으로써 자기의 비행을 합리화해주는 기술이다. 예를 들면 타인의 차를 훔친 것이 아니고 잠시 빌린 것으로 차량절취행위를 정당화하며 학교의 무단결석이나 마약사용행위는 장본인인 자기이외 손해를 본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위법행위를 합리화하는 일 등이다.

셋째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이다. 이는 비행소년이 자기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사람은 피해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으로 간주함으로써 자기행위를 합리화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절도행위는 부정한 상점에 대한 정당한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역으로 죄인으로 변질된다.

넷째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이다. 이 기술에서는 비행소년들의 관심의 초점은 자기들의 비행을 비난하는 인간의 동기와 행위에 모아진다. 그들은 자기들의 비행을 비난하는 인간들이야말로 진짜로 부패하고 위선적인 인간들이라고 규정한다. 경찰과 관료 정치인들은 자기들 보다 더 부패했으며 학교교사들은 정실주의의 노예자들이라고 비난함으로써 그만큼 자기들의 범법행위가 합리화된다.

다섯째 고도의 충성심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의 기술인데 이는 비행소년들이 지배적인 가치체계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속한 비행집단에 대한 충성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위법적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핑계를 내세움으로써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비행소년들은 종종 자기들의 비행을 자기가 속한 비행집단의 압력이나 그 집단의 규범에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당화하곤 한다.

위에서 든 중화의 기술을 학습하게 되면 위법적 행위에서 생길 수도 있는 죄책감을 악화시키고 비행을 한층 더 용이하게 한다. 요컨대 비행소년은 「공적으로 선언된 가치와 공존하는 잠재적 가치의 일부를 취해서 그것을 강조할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중가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현실사회의 모순은 비행소년들이 위법적 행위를 합리화해주는 구실을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5. 사회적 낙인과 소년비행

범죄사회학 분야에서 근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으로서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을 들 수가 있다. 이 이론은 범죄, 비행에 관한 종래의 원인론 탐구에서 범법행위에 대한 사회적반응과 범법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 보다 더 치중한다.

낙인이론에서는 어떤 소년이 애당초에 왜 비행을 범했는가 하는 문제보다도 일단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어떤 사회과정을 통해서 범법행위를 지속하여 누범자가 되도록 하는가를 비행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고찰되고 있다.

낙인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베이커(H·Becker)에 의하면 「사회집단들은 그것을 위반하면 일탈자가 되게끔 하는 규칙들을 만들고, 이 규칙들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일탈자로 낙인 찍음으로써 일탈을 창출」하는 셈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일탈을 한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위반자」에게 규칙과 제재를 다른 사람들이 적용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탈자란 낙인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람인 것이라고 한다.

일탈에 관한 베이커의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범죄라든가 비행은 어떤 특정행위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고 그 행위에 부여된 사회적 정의의 산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는 범죄나 비행은 어떤 고정적이고 불변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실재론적 가정에 바탕을 둔 종래의 전통적 범죄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낙인이론자들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는 사회마다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특정 사회 내에서도 같은 행위가 때론 범죄로 규정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는 어떤 행위 속에 내재하는 불변적인 특질이 아니고 사회정의의 소산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여 한 사회가 비행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될 행위를 비행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는 비행자가 그 만큼 많아지게 된다. 말하자면 사회란 규칙을 만듦으로써 규칙위반자를 창출하는 셈이 된다.

낙인이론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측면을 강조하여 비행자라고 규정된 사람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그의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시 되고 있다. 낙인자들은 자아란 사회적 산물이란 입장에 서서 어떤 인간이 사회통제기관이나 타자에 의해서 일탈자·비행자라는 낙인과 오명을 부여 받게 되면 그는 그와 같은 반응에 부합하도록 자아상을 재정립하여 스스로를 일탈자·비행자라 규정하여 비행적 생활양식과 경력으로 휘말려 들어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소년이 처음에는 아무런 나쁜 의도를 갖지않고

장난 삼아 상점에서 연필 한 자루를 주인 모르게 훔쳤다고 하자. 이 사실을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거나 알았다 해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 소년에게 그런 것을 다시는 하지 말라는 가벼운 경고나 충고로서 그 사실을 마무리 지었다면 이런 비행은 그 소년의 자아상을 별로 훼손하지 않은 채 그 소년은 정상적인 인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 소년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고 기소되어 비행소년이라는 공식적인 낙인을 부여 받게 되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진다. 그 자신이 아주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며 그러한 낙인에 따른 사회적 차별 대우는 그로 하여금 주로 다른 비행자들과 교제케하고 점점 더 심각한 비행을 범하도록 유도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낙인론의 창의적인 측면은 범죄 비행을 방지하고 통제하려는 사회가 특정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또 특정인을 범법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바로 사회가 제거하려는 범죄행위를 창출하면서 그것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성에도 불구하고 낙인론은 몇 가지의 이론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이 이론은 사회적 낙인의 수락은 불가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일탈자(특히 정치범 등)가 그러한 낙인을 수락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일탈의 개념규정에 있어서 낙인이 없이는 일탈도 없을 것이라는 상대주의적 이상주의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적 낙인이나 반응을 경험하지 않고도 범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낙인론적 시각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넷째 이 이론은 사회적 반응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애초의 범죄비행의 발생원인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론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낙인론은 사회가 소년을 어떻게 보호하고 전과범을 어떠한 방식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소년범죄비행의 사회학적 이해란 측면에서 몇 개의 사회학적 이론을 소개해 보았다. 물론 소년 범죄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들은 여기에 소개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지면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사회가 소년 또는 소년범죄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동시에 소년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보호와 그 대책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사회가 소년들로 하여금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문제와 둘째 일단범죄자가 된 소년을 그가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사회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소년비행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들을 소개할 때도 여러 차례 시사되었지만 소년범죄는 주로 도시사회의 하류층의 현상으로서 사회구조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도시의 하류계층에서 소년비행과 비행집단이 많이 발생하는가. 하류층이란 일반적으로 기존사회체제의 제사회적 보수와 권력 배분구조에서 소외된 계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층의 성원들은 기존질서와 여기에 바탕이 되는 규범, 가치체계와의 동일시의 의욕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편집과 계층의 기득권의 보호에 주로 지향되고 있는 사회통제장치도 하류층 성원이 저지르는 범죄, 비행을 한층 더 「공식화」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공식적인 범죄·비행률은 다른 계층에 비해서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가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과거 전통적인 공동체적 사회에 비하여 현대 개방적인 사회에서 각종의 사회병리현상이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되어 개방적인 특성을 갖게 되면 지리적 이동과 사회적 이동이 촉진되어 전통적인 공동체에 바탕을 둔 사회통합이 감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류층의 비행집중화현상도 근원적으로는 사회통합의 감퇴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합의 약화현상이 경제성장일변도의 근대화정책으로 인한 사회계층간의 빈부의 격차, 상대적 빈곤의식의 확대 및 물량주의적 가치권의 보편화 현상과 결합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의 맥락 속에서 왜 하류층의 소년들이 비행화 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류층 소년들의 비행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물론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학적 제이론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소년비행이 개인적 결함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조와 문화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면 소년비행의 예방책도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년비행을 예방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사회계층간의 빈부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해소하는데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오늘날 교육이란 사회적 상승이동과 지위향상의 가장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 하류층의 자녀들은 주로 경제적 빈곤 때문에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때문에 이들은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없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며 개인적으로는 강한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소외와 개인적인 좌절감은 비행성향을 조장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아닌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 균등한 분배는 하층계급의 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병행해서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학벌위주의 문화적 풍토를 근절하는 일이다. 취업이나 승진, 출세 등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경력 보다도 학벌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실정이다. 그래서 너도나도 대학에 진학해야만 한다는 허구적인 교육열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래서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류층의 자녀들은 이러한 경쟁을 애당초부터 포기하거나 경쟁을 해도 패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쟁의 포기와 패배는 이들의 좌절감과 열등의식을 한층 더 가중시켜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학벌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경력에 의해서 취업의 기회와 보수 및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공무원이나 기업체의 사원을 채용하고 승진하는데 학벌위주의 인사정책의 조속한 폐지를 의미한다.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감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거시적인 방법은 저 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개발의 확충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들 수가 있다. 특히 계층간의 유화감과 불신감을 해소하고 하류층이 체험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의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소득층의 사치풍조와 호화생활을 제도적으로 규제해야만 한다. 이러한 규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물량주의적 가치를 지양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성공적으로 이룩되면 하류층의 성원들은 기존사회에 대해 한층 더 강한 귀속의식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차원에서 사회를 재통합케 하여 소년비행을 포함한 각종의 사회병리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리 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소년비행의 누범화를 막기 위해서는 비행소년을 보는 「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비행소년이란 정상소년과 질적으로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사악한」 인간의 무리들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도 정상소년들이 갖고있는 동일한 욕구와 감정, 열망들을 갖고 성장해 온 정상적인 소년들이다. 그들을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전락시킨 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가 비행소년을 응징하고 처벌하려는 태도보다도 이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주려는 관용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소한 탈선적인 행위에 대해 사회가 지나치게 반응하면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더 악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법집행기관에서 「일벌백계주의」라는 원칙 하에 특정 비행소년에게 지나친 형벌을 가한다거나 언론기관에서 소년비행을 지나치게 확대보도하는 등의 신경질적인 사회적 반응은 비행소년의 예방과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민한 반응은 비행소년이라는 공적인 낙인을 보다 더 강화시켜 그 소년에 대한 차별과 고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 소년으로 하여금 또 다른 비행을 지속적으로 범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엄청난 결과를 빚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할 사실은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통제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역으로 그것을 유발하고 지속하는 역기능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행소년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가장 근원적?이상적이기도 하지만-방법은 소년비행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노력을 극소화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둔다.

- 미국 카슨 · 뉴먼 컬리지 사회학과, 듀크 대학교대학원 (M . A.)

- 저술 「사회학회 이해」외 논문다수.

- 이화대학교 여자사회학과 교수역임

- 현재 홍익대학교 사회학과 교수